데스크시각

기 현 호

‘사커 맘’ 포기 해야 하나요

〈자녀를 축구선수로 키우는 어머니〉

포르투갈의 전설적 축구영웅 ‘흑진주’ 에우제비우, 그는 대활약을 펼친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슈퍼스타로 떠오르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후 승승장구한 그는 축구공 하나로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그를 세계 축구역사에 길이 남는 별중의 별로 만든 것은 축구공이 아닌 테니스공이었다. 1942년 인도양 멀리 마다가스카르섬을 접하고 있는 아프리카 남동부 모잠비크, 로렝소마르케스 해변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는 미개한 부족의 소년이었다.

스타들 어릴 때 기술 연마

소년에게 가난은 천형이자 운명이었고 따라서 축구공은 구경조차 할 수도 없었다. 단지 우연히 그의 손에 들어온 테니스공이 축구공을 대신했다. 에우제비우는 어린시절 고향의 모래밭에서 테니스공으로 축구 실력을 연마한 것이 훗날 성공의 열쇠였다고 밝혔다.

가난을 먹고 자란 대스타는 숱하게 많다. 최고의 골잡이 프랑스의 티에리 앙리도 카리브해 서인도제도 출신의 빈곤한 이민자 2세다. 그는 파리에서 23km 떨어진 작은 마을, 이민자들이 몰려사는 빈민 아파트에서 힘겨운 소년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경비원이지만 극성스런 ‘사커대디’인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축구를 접할 수 있었다.

1954년, 유소년클럽팀 주장인 9살 소년 베켄바워는 스위스월드컵 서독과 헝가리의 결승전 중계방송을 동네의 작은 라디오 수리점 스피커를 통해 듣고 어머니에게 “10년후 국가대표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고백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줬고 결국 1966년 에우제비우가 뛴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서독팀을 결승전까지 이끌며 세계 최고스타의 반열에 우뚝 섰다.

비록 가난했지만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을 찼고 동네의 유소년팀에서 기량을 체계적으로 연마했다는 점에서 성장기가 닮았다. 이들을 축구영웅으로 키워낸 밑거름은 바로 어린시절 배운 축구기술이었다.

전문가들은 축구선수들의 개인기량은 대부분 유소년기에 생성되고 몸에 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8세부터 18세까지는 부담없이 축구를 즐기면서 기본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골 결정력 부족과 문전처리 미숙 등 한국축구의 고질을 치료하는 기술 습득도 유소년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축구를 하면 문전에서 반응하는 것부터 다르다는 게 그들의 분석이다. 특히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체력이나 정신력은 뛰어났지만 개인 기량은 32위권이라는 비판은 유소년 축구 육성의 당위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유소년 클럽의 경우 시스템은 접어두고라도 양적인 면에서 개도국 수준도 못된다. 축구선진국들은 물론 일본까지도 유소년 클럽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 프로축구 14개 구단중 나이별 3단계의 완벽한 유소년 클럽을 갖고 있는 구단은 전남 드래곤즈를 비롯 포항, 울산 뿐이다. 그 아래 단계의, 취미정도로 공을 차는 보급반도 전남을 비롯 6개 구단에만 있다.

유소년 축구 활성화 시급

광주에는 프로팀이건 사설이건, 어떠한 형태의 유소년 클럽도 없다. 전국 초등학교 축구팀 293개 중 광주에는 4개, 전남에는 18개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하는 극히 초보적인 축구교실만 광주는 5곳, 전남에는 6곳이 있을 뿐이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주부 김모(38)씨는 월드컵 직후 광주의 이런 열악한 축구교육 환경을 접했다. 유난히 축구에 매달리는 아들을 위해 축구교실을 찾았으나 마땅한 곳이 없었고 괜찮은 축구선수로 키우는 것이 서울대 보내는 것보다 어렵다는 주위의 만류에 ‘사커맘’이 되는 걸 포기했다.

소년 베켄바워나 그의 어머니처럼, 한국의 소년들과 어머니들이 축구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고, 일류 축구선수로 성장하는 것이 서울대에 진학하는 것보다 쉬워져야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열릴 것 같다.

〈체육부장〉 kihh@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이 병 우

술자리 사고 예방 10계명

성추행.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여기에 걸리면 바로 끝장이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연륜과 경륜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그 불명예는 두고 두고 회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잊을만하면 하나씩 터져나온다.

올초엔 꽤 높은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 한분께서 대형 사고를 쳤다. 용감한지 둔감한지 모르지만 술자리후의 노래방 타임에서 여기자의 가슴을 더듬었다고 한다. 이로서 공든 탑대신 성추행의 불명예전당에 이름 석자를 올리게 됐다. “식당 여주인줄 알았다”고 어설픈 해명했다가 전국 요식업 협회의 분노에 찬 성명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공식 사과하고 국회의원 사퇴까지 할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슬그머니 공식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나섰다. 이제 진퇴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실추된 명예는 만회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최근 일본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다. “배꼽 밑 일에는 인격이 없다(헤스노시다와 진카쿠나이)”는 말의 발상지인 일본도 이제는 많이 바뀐 것같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다. 얼마전엔 모 방송사 기자가 동행 취재중 술자리에서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성추행 사건을 들여다 보면 몇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번째는 대부분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남성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술자리 상황에서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한번 물의를 일으키면 만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쫓겨남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흔들리게 된다.

왜 이럴까? 원인을 찾자면 천일야화처럼 사연도 많을 것이다. 그럼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멀리하고 오인받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름하여 ‘술자리 사고예방 10계명’이다.

①한번 잘못 더듬으면 인생을 더듬거리게 된다. 더듬기 전에 3초만 생각해라. 당해서 신세망친 선배들을 떠올려라. ②배꼽 아래엔 인격이 없다는 말은 옛말이다. 배꼽 아래에 명줄이 있다. ③특히 힘있는 위치에 있을 때 조심해라. 지위가 높을 수록 후폭풍은 거세진다. ④자기 좋다고 웃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지 기분 좋아서 웃는 것이다. ⑤설사 좋다고 해도 믿지마라. 조석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뭔가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들면 돌변한다. ⑥술은 안전한 소주를 마셔라. 사고는 대부분 양주를 마신 후에 일어났다. 소주가 최고다. ⑦만약 일이 터지면 그 자리에서 석고대죄를 하더라도 해결하라. 일단 소문이 나면 백약이 무효이다. 석고대죄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물론 최고다. ⑧섹시한 여자를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고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면 신사가 아니다. ⑨계급장을 떼고도 같은 대우를 받을지 스스로 생각해라.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부디 자중해라.

⑩진실해라. 진심으로 대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줘라. 사고는 가볍게 여길 때 일어난다

〈보해양조 홍보팀장·2005년 8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기 고

오 수 진

환경부의 ‘환경 극단주의’

경찰청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 보관된 전국의 공기총은 20만정.

그러나 이들 공기총 소지자들 중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1천5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환경부 발표다.

그렇다면 공기총소지인 20만명 대부분이 불법으로 총포를 사용하고 있다는 가설(假說)이 성립하는 셈이다.

매년 7~8백 명의 공기총 소지인이 불법수렵으로 단속되었고, 최근 5년 간 4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밀렵 행위로 적발됐다는 환경부 통계도 있다.

왜 공기총 소지자들의 불법 수렵과 처벌이 반복되는 걸까. 파행적인 수렵정책과 환경부의 환경 극단주의(極端主義)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총포 소지인들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면허시험은 1년에 고작 5월과 9월, 두 번밖에 없어 이 시기에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 1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또 공기총의 경우 일부 부품만 경찰서에서 보관되고 나머지는 가정에 보관한다. 마음만 먹으면 부품을 구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기총 20만정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가정에 방치되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기총과 엽총을 모두 같은 수렵 구역에서 사용하도록 묶어두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공기총은 콩알 크기의 작은 납 탄을 한발씩 발사하지만 엽총은 한꺼번에 400발까지 5연발로 발사할 수 있고, 공기총의 발사에너지는 60줄(J)이지만, 엽총의 발사에너지는 공기총 위력의 무려 50배가 넘는 3천~4천줄(J)이다.

또 공기총 소지자들은 자동차 등 은폐물에 숨어서 조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소위 ‘차(車)치기’ 라는 방식의 사냥법을 사용한다. 엽총의 경우 사냥개를 풀어 도망가게 하여놓고 총을 쏜다.

공기총 소지자 입장에서 보면 같은 지역에서 엽총 소지자와 수렵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엽총 사냥꾼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을 찾다 보니 불법 수렵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생기는 것. 수렵이 허가된 지역에서 공기총 소지인들은 오히려 사냥을 하지 않는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총포의 특성과 수렵방법에 대한 연구 없이 수렵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 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엽기에 수렵허가를 받아 엽총을 사용한 사람은 2천37명이지만, 공기총소지인은 단 1명도 없다고 한다.

반면 그 경찰청 산하 공기총소지자는 무려 1만2천356명이 있다.

환경부가 밝힌 ‘강력한 단속과 대국민 홍보’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만 한다.

환경부는 수렵제도 개선은 환경보존 정책과 서로 상충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논리는, 무책임한 궤변이고, 환경 극단주의(極端主義)의 극치(極致)라 할 것이다. 〈한국총포협회 회장〉

수해 피해 지역 농기자재 무상수리 제도마련됐으면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지역이 엄청난 수해 피해를 입었다. 농경지가 침수됐고, 농기계들도 물에 잠겼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고 발빠르게 복구와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별도로 농기계 제작업체와 농 기자재 판매업체들도 농기계 무상 수리에 나서야 한다.

전남지역 수해때도 군인·공무원·일반인 등 너도나도 농촌 수해지역 주민 돕기에 나섰는데, 농기계 수리 담당자를 보기는 쉽지 않았다.

농기계 제작업체 등은 자원봉사 농기계 수리팀을 꾸려 수해지역의 녹이 슬고 물먹은 콤바인·비료살포기·관리기 등 고장난 농기계 수리에 나섰으면 한다.

이런 경우에 긴급 순회수리봉사반을 현장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됐으면 좋겠다. ▲안영찬·보성군 미력면

신분 확인후 광고 게재해야 허위광고 피해 줄일수 있다

취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정보지나 전단지에 구인광고를 낸 뒤 찾아온 대학생 등 취업 희망자를 상대로 물품 강매·절도·강도 행각 등을 벌이고 있는 것.

회사 이름도 XX 인터내셔날, 아니면 YY 컴패니 등 영문이나 애매한 표현으로 이뤄져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유령 회사들의 구인광고를 보고 무작정 혼자 집을 나서는 것은 위험 천만한 일이다.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는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사법 기관에서는 취업을 빙자한 각종 사기 관매나 범죄자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본인의 실명 확인을 거친 뒤 광고를 게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정보지나 홍보전단지만을 믿고 무조건 찾아가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

▲진보라·목포시 복만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사 설

광주상의 개혁 시민단체에 맡길 것인가

광주경실련이 지난 3월 중순 실시된 회장 선거를 둘러싼 불공정 시비 논란과 법정소송으로 5개월째 파행운영되고 있는 광주상의에 대해 제도 개혁을 통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실련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대안 제시 능력 향상과 사회공헌 활동 확대, 불합리한 운영제도 개선 등을 통해 광주상의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장의 권한 축소, 선거제도 개선, 상의의원 정수 및 회원사 참여 확대, 선거권자의 자격기준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민들은 광주상의가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상의는 5개월이 다되도록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은 커녕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그동안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걸 보면 지역 최대 경제단체로서의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가 개혁을 통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을까.

광주상의는 그동안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상의는 상공인의 친목단체로 출발했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제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공적 역할과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으로 발전했다.

그럼에도 광주상의는 회장 1인의 독선적 운영과 구성원의 비전문성 등 여전히 구멍가게 식 운영으로 일관해 신뢰를 잃었다. 상공인 사이에서 “광주상의는 상공인을 분열시키고 상처만 남기는 단체다”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지금 지역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 영세상공인들은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따라서 광주상의의 개혁은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광주상의가 진정한 경제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공인들이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개혁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전교조, 선거 패배에서 교훈 얻어야

엊그제 실시된 제 5대 교육위원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참패했다. 전교조는 41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당선자는 14명에 불과했다. 2002년 선거에서 35명을 추천해 24명의 당선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위상이 크게 추락한 것이다. 광주에선 2명이 당선됐지만 전남과 전북, 부산, 대전, 경북에선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다. 서울에선 4년 전 7명을 당선시켰으나 이번에는 2명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전교조는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교훈을 얻지 못하면 존립 자체를 위협 받을 수 있다. 학부모나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최근의 운동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전교조가 출범 초기 교육과 교단의 혁신에 상당 부분 공헌해온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해직이라는 희생까지 감수하며 교육계의 부패와 부조리, 잘못된 관행 등을 타파하기 위해 앞장서온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전교조에 등을 돌리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은 왜인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과격한 교육운동을 벌이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과 교원평가제 등 각종 교육정책에 반대하며 강경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에서는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인용한 통일교재를 만들어 색깔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오죽하면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진경 전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이 “전교조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방해만 되는 세력”이라고 비판했을까.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힘쓸 때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 국민들은 ‘스승다운 스승’이 교단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서머타임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요즘 우리나라에 서머타임제(일광시간 절약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는 기존 에너지절약정책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긍정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으나 이해관계가 맞선 집단간의 파열음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논의가 있을 때마다 노동자들의 근무시간만 연장되고 생체리듬의 혼란을 가져온다해서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

우리에게 서머타임은 생소한게 아니다. 88올림픽 당시와 건국 후부터 1960년까지 한국전쟁중의 2년을 제외하고 매년 실시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연방의회는 별 이견없이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을 통과시켰다. 서머타임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는 것인데, 하루 10만배럴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파를 초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내년부터는 3월 두 번째 일요일에서 11월 첫째 일요일까지 서머타임이 적용된다.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에너지절약의 한 방법으로 서머타임제를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벤저민 프랭클린의 제창으로 건국 초기에 이미 서머타임이 실시됐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먼저 1차 세계대전중 서머타임을 적용하면서 전 대륙으로 확산돼 갔다.

이제 선진국은 물론이고 세계 80여개국이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이익은 물론 개인의 취미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족중심의 생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서다.

우리보다 늦게 도입한 나라에서도 서머타임제가 정착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서머타임제 도입을 위한 여건조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사 업 2 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